

## 구강건강 예방을 통한 치과의사의 책임과 윤리

김 백 일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미국에서는 치과의사를 보는 시각이 양면적인데 이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표현으로 drill-fill-bil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한국의 치과의사들도 임플란트나 보철치료에 편중하면서 구강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방치과의 목표는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자연치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기도 하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질병의 진행은 스펙트럼과도 같은 연속적인 과정인데 의학에서는 이 과정을 질병과 건강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나 질병과 건강사이에는 반드시 기능이 저하되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게 된다. 일반의학 분야에서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있어서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임상단계(clinical phase)보다는 그 이전인 임상전단계(subclinical phase)를 탐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왔다. 예방치과는 기존의 구강질환을 임상단계에서 외과적으로 개입하는 치료중심보다는 무증상 단계지만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임상전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예방치과에서 접근방법은 크게 2가지로써 첫번째는 질병 이전의 기능저하 단계를 “초기 탐지”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탐지된 초기 상태를 적절하게 “초기 관리”하는 것이다. 초기 탐지를 위해서는 구강질환의 원인인 바이오필름의 생체형광(biofluorescence)을 탐지하는 방법이 나 자가 설문지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초기 관리에서는 탐지된 바이오필름을 전문가 및 자가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거하고, 불소 및 다양한 항균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강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경우 타액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2분 입체조와 같은 운동법을 활용하는 것도 임상현장에서 유용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질병전단계를 효과적으로 초기탐지하고, 이를 초기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 학력 및 경력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원 치의학 박사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부학장, 학생부학장, 교무부학장 역임
- \*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주임교수  
ISO TC106 SC7 한국 대표  
의학 한림원 정회원